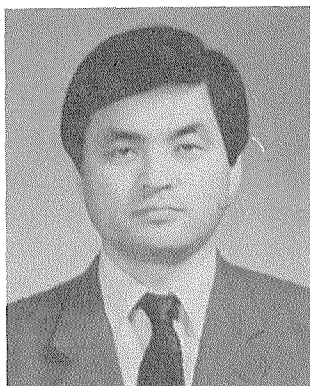


석유사이클과 90년대 국제유가



尹東勳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겨울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예상외로 낮게 형성되자 지난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저유가현상이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석유소비국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석유의 전량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년 사이 걸프사태, 뤄소련의 혼미 등 대형 유전관련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석유 시장에서 저유가란 용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높았었다. 그러나 고유가는 석유의 장래를 암울케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이로써 국제석유시장이 앞으로 안정세를 지속하여 나갈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전세계 산유국의 대명사로 불리어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등 제반 석유시황이 석유사이클상 하강국면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걸프전쟁 전후의 국제석유시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석유사이클이라 명명할 수 있는 순환적 변동이 제1, 2차 석유파동 등 주요 징표들에 의해서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경험되고 있는데다 세계석유수급이 균형을 이탈하게 되는 시점과도 부합되고 있음을 분석해본 뒤, 석유는 산업의 주식량이라는 관점과 아울러 90년대 남은 기간 동안 국제유가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것이 석유사이클상 유가안정국면을 이룰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II. 걸프전쟁 전후의 국제석유시황

1. 걸프전쟁 이전

걸프사태는 국제석유시장을 일변시켰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 점령하면서 야기된 걸프사태는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이고 세계석유수급 상태를 곧바로 혼란으로 몰아 넣었고 국제유가를 치솟게 하였다.

걸프사태 직전인 1990년 7월 국제유가는 쿠웨이트와 UAE가 자신들에게 배정된 쿼터 이상으로 산유량을 늘리면서 한때 美國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 배럴당 15달러선까지 내려갔고, 7월말에 열렸던 OPEC 총회에서 목표가격을 3달러 인상하자 WTI 가격은 20달러선으로 회복되었다.

여기에서 국제유가는 걸프사태에 편승, 10월들어 40달러선을 돌파한 적도 있었으며 10월 중순을 고비로 반락 진정되었다. WTI와 중동산 두바이기준 1990년 7월 31일 배럴당 각각 20.7달러, 17.2달러에서 10월 11일 40.4달러, 35.4달러로 급등하였고 1991년 1월 16일에는 32.0달러, 25.3달러로 하락하였다.

2. 걸프전쟁중

걸프전쟁의 개시는 또 한번 국제석유시장을 일변시켰다. 1991년 1월 17일 미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은 이라크와 전단을 벌여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전세계에 가시화시켰으며, 국제유가도 이로 인해 급락하였다.

걸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中東지역의 유전이 전화로 인해 소실되고 석유수송이 두절될 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국제유가를 밀어 올렸으나, 막상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다국적군의 제공권 확보가 확실해졌고, 이라크와 쿠웨이트로부터의 석유수출이 중단된 와중에서 여타 산유국들의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등 국제석유시장을 뒤덮고 있었던 정치적, 군사적 요인이 일거에 해소되고 공급과잉이라는 수급요인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WTI와 두바이 가격은 1991년 1월 17일 배럴당 21.4달러, 15.5달러로 크게 떨어졌고 전쟁중인 2월 22일에는 17.5달러, 12.9달러까지도 내려갔으며 종전이된 1991년 2월 28일에는 각각 19.2달러, 14.6달러에 거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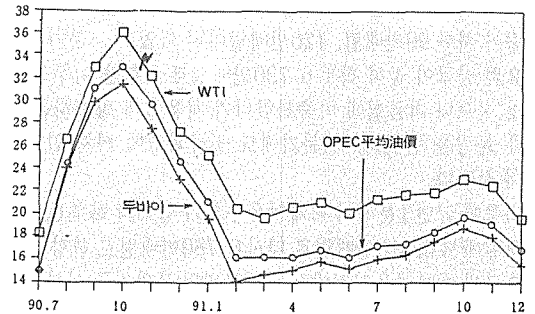
3. 걸프전쟁 이후

먼저 가격면을 살펴보면 걸프전쟁이 끝난 이후 대폭락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국제유가는 소폭이나마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다. 작년 3월과 6월을 제외하고 10월 중순까지 상승, 작년 10월 18일 WTI기준 배럴당 24.2달러에 달하였다.

이때를 고비로 국제유가는 반전되었고 최성수기인 최근 한단계 더 떨어졌다. WTI 가격은 작년 12월 둘째주부터 지지선으로 여겨왔던 20달러선이 무너졌고 급기야 금년 1월 둘째주에는 17.8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10월의 고가에 비해 약 30% 하락한 것이고, 걸프사태 이전인 1990년 7월말의 20달러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통상 겨울철 석유성수기의 세계석유수요는 여름철 석유비수기보다 하루 200만~400만배럴 더 많아 계절적인 유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었다.

〈그림-1〉 주요 국제 原油價의 최근 추이



공급측면에서는 국제석유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비OPEC의 생산이 감소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세계 총공급량은 늘어나고 있다.

OPEC는 작년 2분기와 3분기의 공식산유쿼터를 하루 2,230만배럴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생산량은 2분기에 2,270만배럴, 3분기에 2,350만배럴로 산유쿼터를 각각 하루 40만배럴, 120만배럴 초과하였다. 4분기 산유쿼터는 전분기보다 하루 135만배럴 증가한 2,365만배럴로 합의하였으나 10월, 11월, 12월의 실제 산유량은 이보다 각각 하루 15만배럴, 45만배럴, 75만배럴 많은 2,380만배럴, 2,410만배럴, 2,440만배럴에 달하였고, 12월 산유량은 1981년 이래 월간으로는 최고수준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던 구소련의 석유생산이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에도 석유수출은 염려했던바와 달리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88년 하루 1,200만배럴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구소련의 석유생산량은 작년 2분기와 3분기에 하루 1,060만배럴, 1,020만배럴로, 4분기에 1,000만배럴에 그쳤으나 석유수출은 같은 기간에 하루 약 200만 배럴에 달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공급과는 대조적으로 수요는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 미국의 경기후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호조를 보여왔던 일본, 독일마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감속되면서 선진국(OECD)의 석유소비가 당초의 예측치보다 감소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석유수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OECD의 석유수요는 작년 3분기에 하루 3,720만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100만배럴 감소하였고, 4분기도 하루 3,880만배럴에 그쳐 걸프사태로 말미암아 이래적으로 줄어들었던 1년보다는 100만배럴

늘어났으나 2년전보다는 70만배럴이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처럼 세계석유수급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작년 2분기와 3분기의 세계석유수요는 하루 6,500만배럴, 6,520만배럴인데 비해 공급은 6,590만배럴, 6,640만배럴로 초과 공급량이 하루 90만배럴, 120만배럴이나 되었고, 4분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공히 하루 6,730만배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으나 여름철에 비축하였다가 겨울철에 방출하는 재고유 물량을 감안하면 4분기에도 공급과잉에 빠져 있었다고 추정된다.

더욱이 급변 1분기의 세계석유수요가 당초의 하루 6,840만배럴에서 6,810만배럴로 다시 6,780만배럴로 하향 수정됨으로써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 분위기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III. OPEC내 역학구조의 재편

1. 온건파 사우디의 재부상

OPEC내 최대 산유국이자 석유수출국인 사우디는 걸프사태가 전화위박의 계기가 되어 명실상부하게 제일의 실력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동안 아랍의 대의나 이웃 아랍국의 처지도 고려해야 하는 등 사우디가 자국의 석유정책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었지만 걸프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라크를 지지하는 나라, 사우디를 지지하는 나라, 중립자세를 취하는 나라로 분명하게 삼등분되는 등 中東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온건파 사우디의 석유정책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 사우디는 OPEC의 각종 회의에서 이라크, 이란을 포함한 강경파의 견제를 받아 자신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하였으나 걸프사태 이후 일부회원국의 감축론에 대해 OPEC 탈퇴로 맞서는 단호한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강경파 이라크의 몰락

OPEC내에서 두번째로 많은 공식 산유쿼타를 보유하고 있던 이라크는 걸프전쟁에서 패배하여 사우디와는 판이한 형편에 처해 있다. 작년초 걸프전쟁이 발발되기전 이라크는 세칭 백만대군과 화학무기를 바탕으로 中東의 강자로 행세하였고, 쿠웨이트와 UAE의 상습적인 쿼터위반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라크의 석유판매수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90년 7월 OPEC 총회에서 이라크는 OPEC의 목표가격을 당시의 배럴당 18달러에서 25달러로 인상하자는 안을

제출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석유시장은 90년대에 고유가시대가 재개되는 전조로 여기는 불안에 휩쌓인 적도 있었다. 이라크의 25달러안에 대해 사우디는 기존의 18달러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대립되었으나 이라크의 위협에 사우디가 굴복하였고, OPEC의 목표가격은 배럴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걸프사태가 일어난 1990년 8월에 이라크는 유엔에 의해 즉각적인 전면 금수조치를 당하였고,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

IV. 석유사이클 형성과 그 요인분석

1. 석유사이클의 징표

석유사이클(oil cycle)이란 수급과 가격이 동시에 또는 시차를 가지고 약화와 상승 및 완화와 하락을 거듭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유가상승기와 하락기가 번갈아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규칙적인 사이클이란 역사적으로 거의 없으나 70년대 이래 최근까지 국제석유시장에서 나타난 유가변동에 관해 어떤 일정한 과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에 석유사이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70년대의 1, 2차 석유파동과 80년대 중반의 유가대폭락, 제작년의 걸프사태등 석유사이클상 주요 징표들을 살펴본다.

(1) 제1차 석유파동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등 아랍간에 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아랍산유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에 대해 선택적인 석유수출 금지조치를 실행하는 동시에 유가를 대폭 인상한 것을 제1차 석유파동이라 할 수 있다. 사우디산 아랍라이트(AL)기준 1973년초 배럴당 2.5달러에서 연말에 5달러, 1974년초 11.6달러로 1년사이 무려 350%나 폭등하였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약 5년간 안정되었는데, AL 가격은 1975년과 76년에 11.5달러, 1977년과 78년에 12달러선 1979년초 13.3달러였다.

(2) 제2차 석유파동

제2차 석유파동은 제1차 석유파동기간이 1년이었음에 비해 2년 이상에 걸쳐 일어났다. 1979년 2월 이란의 회교혁명에 성공하자 국제유가는 상승하였다. AL 가격은 1979년 4월에 배럴당 14.5달러, 1980년 1월에 26달러로 올랐고, 1980년 9월중 이란 이라크전쟁이 터지자 11월에 32달러로, 1981년에는 이라크와 이란이 쌍방 유전을 공격함에 따라 10월에 34달러까지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이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1983년 2월에 30달러, 1985년 2월에 28달러

로 떨어졌다.

주요국제원유현물가격 장기추이

<표-1> (단위 : \$/B)

	중 동 산	W T I
1972	1.9	-
73	2.8	-
74	10.4	-
75	10.7	-
76	11.6	12.2
77	12.3	14.2
78	13.0	14.5
79	29.7	25.0
1980	35.6	37.9
81	34.3	36.0
82	31.8	33.6
83	28.7	30.3
84	28.0	29.3
85	27.5	27.9
86	12.9	15.0
87	16.9	19.1
88	13.2	16.0
89	15.5	19.6
1990	20.2	24.3
91	16.5	21.5

주 : 중동산의 경우 1986년까지 아랍라이트 기준이고, 1987년부터 두바이 기준임. WTI의 경우 1983년까지 고시가격 기준임.

(3) 80년대 중반의 유가대폭락

OPEC와 非OPEC간 시장점유를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사우디가 공급조절자(swing producer)역을 포기하고 대대적인 증산에 나서게 되자 국제유가는 일부 유종이 배럴당 10

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대폭락 현상이 나타났다. OPEC 현물유가는 1986년에 배럴당 13.8달러, 1987년에 17.2달러, 1988년에 13.6달러, 1989년에 16.5달러라는 저유가현상이 전개되었다.

(4) 걸프사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8월의 걸프사태는 국제유가를 촉발시켰다. OPEC 현물가격은 1990년 6월의 배럴당 13.2달러에서 10월에 33.1달러로 급등하였고 걸프전쟁이 일어난 1991년 1월에는 21.4달러로, 2월에는 16.2달러로 하락한 뒤 작년 12월 16.6달러에 거래되었다. OPEC 바스켓현물유가와 WTI 가격은 OPEC 현물유가보다 각각 배럴당 1달러, 3~4달러정도 높으며 두바이가격은 OPEC 현물유가보다 1달러정도 낮은 수준이다.

2. 석유수급과 석유사이클

석유수급이 장기간 악화되거나 완화되면 그 결과 앞에서 살펴본 주요 사건이 초래되었고 또한 이것이 공교롭게도 석유사이클현상을 만들어내는 기간과 일치하고 있다.

60, 70년대 주요 선진국의 고도성장시대에 석유수요는 급증하였다. 60년대초만 연평균 하루 100만배럴, 중반에는 200만배럴대였던 세계석유수요 증가세는 1968년부터 하루 300만배럴대에 달하였다. 지나친 수요급증추세에 우려가 나오는 속에서 때마침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다.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석유수요는 연 2년간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였다. 세계석유수요는 전년대비 1976년에 하루 약 360만배럴, 1977년에 230만배럴, 1988년에 240만배럴 증가하게 되자 수급차질에 관한 경고를 제기되던 차에 제2차 석유파동이 닥쳐왔던 것이다.

<표-2>

OPEC의 원유생산 장기 추이

(단위 : 만 B/D)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알 제 리	18	55	102	98	101	67	80
에 콰 도 르	0	0	0	16	20	28	30
가 봉	1	2	10	22	17	17	30
인도네시아	40	48	85	130	157	118	130
이 란	106	190	382	535	146	219	310
이 라 크	97	131	154	226	264	140	200
쿠 웨 이 트	169	236	298	208	166	93	115
리 비 아	-	121	331	147	183	102	130
나이지리아	1	27	108	178	205	149	180
카 타 르	17	23	36	43	47	29	40
사 우 디	131	220	379	707	990	317	645
U A E	-	28	77	166	170	105	210
베네수엘라	284	347	370	234	216	156	210
합	869	1,433	2,341	2,715	2,688	1,544	2,310

<자료> OPEC, IEA

반면 제2차 석유파동으로 고유가현상과 그 부작용인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세계석유수요가 수년간 계속 줄어들었다. 1985년의 세계석유수요는 1979년에 비해 하루 약 500만배럴이나 감소하였고, 특히 OPEC의 생산량은 非OPEC의 산유량급증에 반비례하여 같은 기간에 하루 3,150만배럴에서 1,730만배럴로 거의 절반이나 격감하고 말았다.

세계석유수요와 OPEC의 산유량이 수년간 감소하자 국제유가는 1986년초에 대폭락하였다. 저유가에 힘입어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세계석유수요는 하루 100만~200만배럴 급증하였다. 이 추세대로 가면 OPEC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등 공급이 수요에 부응하기 힘들어 90년대초에 석유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속에서 1990년 8월 걸프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3. 5년주기의 석유사이클

석유수급력면에서나 외생적측면에서 지난 20여년간의 석유사에서 석유사이클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세계석유수요가 장기간 지나치게 급증하여 공급부족의 우려가 높을때 석유위기가 발생하였던데 비해 석유수요가 수년간 감소하고 사우디가 증산하였을때 유가대폭락이 초래되었다. 국제유가는 1973~74년의 제1차 석유파동을 겪은후 비교적 안정되었고 1979~80년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고유가현상을 보이다가 1986년부터 1990년 상반기까지 WTI기준 배럴당 15~20달러, 두바이기준 13~17달러 내외의 저유가현상으로 바뀌었다. 1990년 하반기에 걸프사태로 한때 3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였다가 작년초부터 다시 하락하는 등 약 5년을 주기로 하는 석유사이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V. 석유사이클상으로 본 90년대 국제유가

1. 향후 국제유가 변동요인

앞으로 90년대의 국제유가를 전망하는데 앞서 이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최초의 국제유가·약세의 결정적 요인의 하나인 사우디의 저유가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사우디의 기본 석유정책은 풍부한 석유매장량을 배경으로한 안정적인 공급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언하면 사우디의 석유공급이 늘어나자면 세계석유수요가 증가하여야 하고 세계석유수요의 지속적 증가세는 적절한 유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우디가 저유가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가는 작년 수차례의 OPEC 회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한예를 보면, 7개 유종으로 구성된 OPEC 바스켓현물가격이

지난해 2분기 동안 배럴당 17달러선에 맴돌아 목표가격 21달러를 4달러나 하회하고 있었던 가운데 열렸던 작년 6월의 제89차 OPEC 총회는 3분기의 산유쿼타를 2분기와 같은 하루 2,230만배럴로 결정하였다. 이때 일부 강경파회원국은 목표가격 미달을 이유로 감산을 내놓았으나 사우디가 안정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일축하였다.

특히 작년 3분기부터 OPEC의 산유쿼타제도는 총량을 설정되 개별쿼타를 합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쿼타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추가 산유능력이 많은 사우디가 겨냥하고 있는 저유가 증산정책이 OPEC를 통해 발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걸프사태 이전에 하루 500만배럴 정도 생산하였던 사우디는 걸프사태를 계기로 하루 300만배럴 증가한 현재의 약 800만배럴 산유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유가급변의 역사적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한다. 제2차 석유파동과 재작년 걸프사태시의 고유가현상은 세계석유수요를 감소시키거나 소폭의 증가에 그치게 하였는데 비해 80년대 후반 저유가현상은 세계석유수요를 크게 늘어나게 하였었다.

1990년 7월 OPEC 회의에서 목표가격 3달러 인상에 가지 못해 동의하였던 사우디는 걸프사태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세계석유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정착되고 있다는 인식을 석유소비국들에게 심어 주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난할 것이다.

둘째, 유럽공동체(EC)의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석유세의 도입이 석유사이클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석유세 부과는 유가상승과 석유수요의 부진 등 석유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EC의 석유세 신설이 국제석유시장에 큰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EC는 작년 9월 환경보호와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993년부터 석유세의 부과를 권고하고 美國과 日本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유에 대해 1993년에 배럴당 3달러를 부과하여 2000년에는 10달러까지 점차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우디 등 OPEC는 EC의 일방적인 석유세 도입이 석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OPEC의 공동대응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를 지적할 수 있다. 1990년 전반에 하루 180만배럴 생산하였던 쿠웨이트는 이라크가 패주하면서 방화한 700여개의 유정을 모두

진화하고 현재 하루 약 60만배럴을 생산하여 수출을 하고 있다. 내년까지 하루 150만배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걸프사태 이전에 자국의 산유권타 증가를 요구하면서 국제석유시황의 악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과생산을 하였으며, 저유가정책을 지향하는 사우디, UAE와 함께 중동의 생산중시파 트로이카의 한 멤버이다.

걸프사태 전에 하루 310만배럴에 달하였던 이라크의 산유량은 현재 UN의 금수조치가 풀리지 않아 하루 40만배럴에 머물고 있다. 이라크는 걸프전쟁으로 파손되었던 산유설비를 복구, 150만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UN의 향후 6개월간 16억달러어치의 석유판매를 허용하는 부분적인 해제조치에 대해 이라크는 거부하고 있는데, UN과 이라크간 추가 협상이 진전되면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일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美國과 이라크간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한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조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넷째, OPEC의 목표가격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1986년 12월 제80차 OPEC 총회에서 결정된 배럴당 18달러의 목표가격을 1990년 7월까지 약 3년반 동안 실시하였다. OPEC 목표가격은 1987년에 만 거의 달성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동안 1~4달러 하회하였다.

1990년 7월 목표가격을 21달러로 인상한 경우는 이라크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결정된 예외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목표가격을 인상하자는 제안이 계속 나올 것이나, 사우디가 저유가정책을 고수하는 한 현재의 21달러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알제리, 리비아, 인도네시아 등 저유황 경질유 생산국들이 사우디의 저유가정책에 반발, 중·경질유가격차가 현재의 3달러내외에서 10달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속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를 배제하고는 OPEC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가격차 확대 움직임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평이다. 1980년 한때 기준가격을 사우디가 배럴당 34달러, 나머지 OPEC 회원국이 36달러를 공시하는 2원화가 되었지만 1981년 제61차 총회에서 사우디의 34달러로 통일되었다.

다섯째, OPEC의 산유능력이 계속 증강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랍오일앤가스(Arab Oil & Gas)지에 따르면, 사우디가 하루 870만배럴에서 1,000만배럴로 이라크가 1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쿠웨이트가 5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증강할 계획등 OPEC의 전체 산유능력은 현재의 하루 2,580만배럴에서 1995년에 3,230만배럴로 확대되고 2000년에는 3,48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OPEC의 산유설비 증강이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세계석유

수요가 매년 약 100만 배럴씩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이를 대부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대체에너지 사용과 개발도 유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5달러를 상회하면 대체에너지 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 세계 1차에너지소비에서 석유의 비중이 1980년에 약 46%에서 작년에는 38%로 감소하여 고유가현상은 가스나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표-3〉 OPEC의 산유능력 전망 (단위 : 백만 B/D)

		1991년	1995년	2000년
사	우	8.7	10.0	11.0
이	란	3.4	4.0	4.0
이	라	1.0	3.0	3.5
쿠	웨	0.5	2.0	2.5
U	A	2.5	2.7	3.0
카	타	0.5	0.5	0.5
기	타	9.2	10.1	10.3
합		25.8	32.3	34.8

〈자료〉 Arab Oil & Gas

이 외에도 산유국과 소비국간 대화도 국제석유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걸프사태는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의사 소통을 촉구하게 되어 작년 7월 처음으로 프랑스와 베네수엘라 주도로 파리총회가 개최되었고, 시장의 안정 원칙을 상호 확인하였다.

2. 90년대 국제유가 안정기

앞으로 90년대 국제유가는 석유사이클상으로 보나 사우디의 증산정책으로 보나 저유가현상이 재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작금의 유가약세는 80년대 중반 사우디가 시장확대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증산하였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나 현재나 사우디로 인해 국제유가가 이례적으로 하락경향을 보이고 있다. 만일 사우디가 대폭 감산에 나선다면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예로에 따른 석유수출 감소, 소련의 경제혼란 등과 겹쳐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산유국들이 우려를 표시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앞장서 감축을 발표하자 사우디도 하루 10만배럴의 감축의사를 밝히는 등 OPEC는 하루 약 40만배럴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가회복→생산증가→유가하락→권타감축이라는 OPEC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OPEC가 목표가격을 상회할 정도로 대규모 감축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목표가격이 달성되면 다음

에는 목표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저유가 석유 수요 증대를 노리는 사우디의 입장으로는 결코 대규모 삭감방안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석유사이클상으로 향후 수년간은 안정기로 보여진다. 국제유가는 약 5년을 주기로 하여 단기간 급등을 보였다가 그 후 장기간 안정되는 사이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걸프사태 시에 비해 크게 떨어진 현재의 국제석유시황은 석유사이클 상 안정국면에 해당된다.

특히 생활에 있어 식량이 필수적이듯이 석유는 경제에 불가피한 요소이므로 국제유가가 일반적으로 수용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세계경제에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산유국과 소비국 모두 유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과 증산에 의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두바이기준 배럴당 15~20달러 내외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 해외석유산업 ◎

B. P. 카타르 LNG 사업에서 철수

국제석유자본 BP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것은 B. P사 사업재조정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착수로부터 생산까지 약 13년 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성과 수익성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동 참가기업인 丸紅과 三井物産은 갑작스런 B. P사의 철수에 당황하기도 했으나, LNG가 「그린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고, 대상지역이 세계 최대매장량의 가스전이라는 점과 조달선의 다양화를 꾀하는 시점에 있어, 계속 잔류를 결정하고 97년에 본격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카타르 LNG사업은 「카타르 액화가스(QLGC 84년 설립)」가 사업주체이고, 자본금의 70%를 현지 카타르국영석유공사가 출자하며 외국기업인 丸紅과 三井物産, BP와 프랑스 석유가 각각 7.5%씩 출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의 돌연한 BP사의 철수로 인한 B. P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출자국을 모집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사업국에게 할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총비용 5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이번 사업은 91년에 들어와서야 구체화 됐는데 생산능력은 향후 천수백만t까지 예상되고 있다. 92년 후반에 국제입찰의 실시가 전망되는 본 사업은 프랑스도 유전생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잔류가 확실시 되며 카타르 정부 또한 산유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수출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사할린 유전개발, 美-日 컨소시엄에 낙찰

1억t의 석유매장량과 4천억m³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상회하는 사할린연안지역 석유개발사업, 맥더모트 인터내셔널(뉴올리언스)과 마라톤석유회사(휴스턴) 그리고 미쓰이(三井)사로 구성되는 美-日, 3개 회사 컨소시엄이 따냈다고 러시아 천연자원부가 1월28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이들 3개 컨소시엄에 개발권을 부여한 이유는 이들 회사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조기에 에너지를 공급할 것과 사할린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계획이 고려됐다고 덧붙이고 있다.

타스통신과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번 석유개발사업 국제입찰에는 로열더치셸, 엑슨, 아모코, 모빌, 소데코(日) 現代등의 석유개발회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맥더모트社등은 오는 3월31일까지 사할린 지역에 대한 개발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식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비밀에 부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